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4년 12월 8일

CUOMO 주지사, 학교에 현지 재배 농산물 조달을 증대시키기 위한 USDA 시범 프로그램에 뉴욕주 선정 발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미국 농무부에 의해 뉴욕주 학교에 현지 재배 농산물의 조달을 위한 연방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선정되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미가공 과일 채소 조달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은 2014년 연방 농장 법안에 포함되었으며 미가공 과일 채소를 조달하기 위한 새 프로젝트를 수립합니다. 뉴욕주는 이런 종류로는 최초의 연방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8개 주 중 하나인데, 그 지원서는 뉴욕주 총무실이 제출하였습니다.

“뉴욕주는 현지 재배 식품의 관측 및 지원에서 전국적으로 인정된 리더인데, 이 선정으로 우리는 학생들이 신선하고 영양이 풍부한 현지 재배 농산물에 접근하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본인은 뉴욕주의 번영하는 농업 중 최고만을 전시하기 위해 우리와 제휴한 USDA에 감사드립니다.”

뉴욕주의 시범 프로그램은 주 총무실이 주관하며 Rochester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OGS는 농민, 식품 허브 및 지역 학교들과 함께 본 프로그램과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Rochester 지역 기관들 중 다수가 이전에 USDA와 같이 일한 적이 없기 때문에 OGS는 그들에게 절차를 안내할 것입니다.

오늘의 발표는 주지사가 새로 출범시킨 “Buy NY” 캠페인과 궤를 같이 합니다. 그 캠페인은 지난 주의 업스테이트-다운스테이트 농업 서밋에서 발표되었습니다. “Buy NY”은 농산물 및 낙농품을 포함하여 뉴욕주 식품 구입 관련 기존의 중앙집중식 계약을 활용하기 위한 주 농업시장부, 교정커뮤니티감독부, 정신건강실, 보건부, 총무실 및 Cornell Cooperative Extension 사이의 공동 노력입니다.

USDA는 처음 2010년에 학교의 현지 식품 접근을 향상하기 위한 Farm to School 프로그램을 수립하였으며, 학교의 현지 식품 가용성을 증대하기 위한 현실적인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USDA는 전국적인 Farm to School 센서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최초의 설문조사가 2011-2012 학년도에 실시되었습니다.

그 센서스를 실시하기 전에 뉴욕주 농업시장부는 캠페인에 대한 관심도를 살피고 장애물 및 기회를 식별하기 위해 전주적으로 1,000여 학교 식품 서비스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2년에 뉴욕주는 전국에서 USDA의 제1회차 Farm to School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을 받는 5개 주 중 하나로 선정되어 주 농업시장부가 설문조사에서 파악된 모범 관행 및 기회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지만 이 프로그램은 이미 성공적이었습니다: 2013년에 뉴욕주 Penn Yan 소재 지역 농장인 Benton Berries는 Johnson시 Binghamton 및 Owego-Apalachin 교육구에 토마토를 매주 납품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해에 약 3,000 파운드의 현지 토마토가 16개 학교 식당의 총 11,500여 학생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2013년에도 Binghamton시 교육구는 뉴욕주 Watkins Glen 소재 과수원인 Reisinger's Apple Country로부터 현지 사과 약 12,000 파운드를 10개 학교 식당의 6,000명 학생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 시범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것은 Cuomo 지사의 지시로 더 많은 지역 재배 및 생산 제품을 뉴욕주인들의 식탁에 가져오기 위한 여러 기회를 찾으려는 많은 주 기관들의 노고를 증거합니다”라고 OGS 실장 RoAnn Destito가 말했습니다. “2011년 이래 OGS는 Long Island의 우리 창고를 통해 지역 농민들과 협력해왔습니다. 225,000여 파운드의 지역 감자, 사과, 캐비지, 당근, 순무, 브로콜리, 옥수수 및 근대가 36개 교육구에 배급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캠페인을 통해 배운 것을 전주적으로 활용하기 원하며 이 시범 프로그램이 성공하여 영원한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학교 및 벤더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저는 학교와 기관에서 현지 생산 식품을 조달하는 것이 뉴욕주 농업에는 아주 황금같은 기회라고 믿습니다”라고 주 농업 커미셔너 Richard A. Ball이 말했습니다. “이 시범 프로그램과 또한 Cuomo 지사의 “Buy NY” 캠페인을 통해 이러한 기회들은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오늘의 발표는 저의 동료 농민들과 우리 주의 밝은 미래를 대표하는 청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연방 농민법의 규정에 의거 시범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주의 선정은 자체의 farm-to-school 프로그램 구축, 주에서 생산되는 현지 과일 채소의 양 및 다양성 그리고 주의 다양한 대상 크기 및 지리적 지역을 섬기는 현지 교육 기관들의 수에 근거해야 합니다.

상원의원 Charles E. Schum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연방-주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주는 전주 학교들에게 현지에서 재배된 과일, 채소와 농산물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것은 뉴욕주 농민들과 학생들을 위한 윈윈입니다. 이제 뉴욕주의 농업은 농장->식탁일뿐만 아니라 농장->학교이기도 합니다.”

상원 농업위원회 위원인 Kirsten E. Gillibrand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학교와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 희소식입니다. 뉴욕주는 더 많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튼튼한 농업의 본거지입니다. 전주의 학교들과 지역 재배 식품을 연결함으로써 우리는 학생들에게 건강에 좋고 영양가 있는 식품 옵션을 제공하면서 뉴욕주 자체의 농업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이 중요한

캠페인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의 모든 레벨 및 USDA와 협력하기를 고대합니다.”

하원의원 Louise Slaught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나라로서 아동 비만과 싸우기 위해 괄목할만한 조치들을 취해왔는데 이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걸음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삶의 초기에 긍정적 코스에 진입시키는 것이 중요한 데 거기에는 특히 신선한 현지 농산물 접근이 제한된 커뮤니티의 경우 등교일에 건강에 좋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평생 그들에게 비만 관련 건강 문제로 인한 의료비 증가를 막아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업스테이트 경제의 등뼈로서 뉴요커들에게 신선한 농산물 옵션을 꾸준히 제공하는 지역 재배자들에게도 혜택입니다.”

하원의원 Chris Gibso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교육구가 지역 과일 채소를 구입할 수 있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신선하고 건강에 좋은 점심 옵션을 갖게 되어 우리 커뮤니티에서 갖는 농업과 농장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인식할 것입니다. 본인은 농장법의 이 조항을 기초하여 자랑스러우며, USDA의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농장-학교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Hudson Valley 및 Catskills의 농민 및 교육자들과 협력하기를 고대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We Work for the People
Performance * Integrity * Pride